

## 하이브리드에 의한 패션의 스포티즘 연구

박 주 희<sup>†</sup>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Sportism in Fashion Generated from Hybrid

Ju-Hee Park<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6. 11. 접수; 2004. 9. 18. 채택)

#### Abstract

Sportism is continuously expressed in every season in a different theme and established as a Mega-Trend of the early 21th century fash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search the social and cultural sources of the sportism expressed in the early 21th century fashion. This study focused on hybrid as one of the post-modern phenomena. By analysing social and cultural sources of the sportism, three aspects were found; first, many different fashion trends are coincides in post-modern society, which is possible and accelerated by hybrid each other. Second, the complicated and competitive society urge the people to review the past and the originality. Third, youth-oriented and individualistic lifestyle was brought by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nd economic surplus. Hybrid of the TPO was analysed which made the sportism mega-trend. 'Formal wear was mixed with casual wear, casual wear with active sportswear, hi-fashion with street fashion, and hi-fashion influenced formal and casual wear again'. The sportism prevalent in 21th century fashion can be explained by this system of hybrid.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aesthetic values based on hybrid of the styles, which are glamorous sportism, romantic sportism, minimal sportism, and heritage sportism.

*Key words:* sportism(스포츠리즘), hybrid(하이브리드), glam(글램), romanticism(로맨티시즘), minimal look(미니멀 룩), heritage(헤리티지).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21세기에는 하나의 트렌드가 다양한 다른 트렌드들과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고,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3의 트렌드를 양산시켜, 한 시즌에도 여러 개의 메가 트렌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패션의 다양화가 가속되고 있다. 창조

를 요하는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하이브리드, 혼성, 퓨전, 크로스오버, 다문화 등의 여러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다원론, 모호성, 탈획일성, 탈중심주의, 탈형식주의, 탈장조, 경계허물기, 해체, 고정관념탈피, 열린개념 등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들과 함께 연구<sup>1)</sup>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메가 트렌드로 21세기의 스포티즘을 들 수 있다.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시대에 따라

<sup>†</sup> 교신저자 E-mail : zenn95@hanmail.net

종목이나 대상은 달리하지만, 현대 도시인의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는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표현양식이나 주제 또한 시층에 따라 변화하지만 패션에 미치는 스포츠의 영향은 더욱 더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패션트렌드와의 접목을 통해 스포티즘이라는 21세기의 메가트렌드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의 다양화 경향이 여러 양상의 하이브리드를 창출하고, 역으로 이러한 하이브리드를 통해 패션의 다양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 액티브 스포츠 웨어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양식으로 발전하게 된 21세기 초반의 스포티즘이, 스포츠가 아닌 다른 상황, 스포티즘이 아닌 다른 트렌드와의 하이브리드를 통해 새롭게 창조되고 확산되는 과정과 유형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 현상을 단순한 하나의 패션트렌드가 아닌, 시기에 따라 다른 상황, 다른 트렌드와의 하이브리드로 그 표현양식을 달리하며 반복되는 메가트렌드로 파악, 지속적인 스포티즘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시키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스포티즘이 하이브리드에 의해 패션의 메가트렌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을 2002년으로 보고, 2002년에서 최근(2004년 3월)까지를 범위로 정하였다. 따라서 실증적 연구를 위해 고찰된 패션잡지나 전문지는 해당 기간에 발행된 것들로 한정하였고, 유형분석에 고찰된 작품들은 2002년 S/S에서 2004년 S/S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스포츠웨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및 스포티즘 확산의 배경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고, 디자이너들이 제안한 스포티즘 패션을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실증적 고찰을 위해, 해외컬렉션작품과 함께 국내의 라이센스 패션잡지와 패션전문지에 소개된 관련 기사들의 고찰로 해외뿐 아니라 국내트렌드의 움직임도 함께 연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스포티즘 관련기사는 라이센스 패션잡지 「보그코리아」 2002년 1월호에서 2004년 3월호, 패션전문지 「패션비즈」 2002년 1월호에서 2004년 3월호를 조사하였으며, 패션정보사 「퍼스트뷰코리아」의 웹사이트에 2003년 12월에서 2004년 1월 사이에 게재된 어패럴뉴스, 한 국경제신문, 동아일보 기사내용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스포티즘, 캐주얼, 캐주얼라이징, 스포츠라이프 등의 용어들을 주제로 하는 기사들만을 고찰하였으며, 관련기사에서 스포티즘의 주제 아래 언급된 디자이너와 작품들만을 채택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 II. 스포티즘 고찰

### 1. 스포티브 룩, 스포츠 룩, 스포티즘의 개념

스포츠활동을 위한 의복을 패션에 적용시킨 패션트렌드 용어로는 스포티브 룩, 스포츠 룩, 스포티즘 등이 있다. 스포티브 룩은 1960년대에 유행했던 방한복의 기능성 요소들을 채택한 디자인을 위해 파리 컬렉션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후 밀리터리 룩, 워크웨어 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사용되었으며, 스포츠 룩은 1970년대 중반에 카스텔 박적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의복을 그네로 패션에 적용시켜 발표하면서 시작된 용어이다.<sup>2)</sup> 2000년대 들어 패션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스포티즘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룩들이 단발적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패션의 한 주제로 정착되어, 매 시즌 변화하면서 반복되는 패션의 한 양식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포츠활동을 위한 의복을 스포츠웨어라고 명명해 나이키, 아디다스, 푸

1) 최혜정, 임영자,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권 2호 (2001).

최수아,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유미,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민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 정정미,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p. 5-9.

마, 아레나, 라피도 등 스포츠 브랜드들을 분류할 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발한 개념인 스포츠웨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스포츠활동을 위한 의복보다는 캐주얼 웨어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스포츠와 레저가 특히 발달한 미국문화의 특성상 현대 미국 기성복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스포츠웨어는 원래 테니스, 골프, 사이클, 수영 등을 위한 의복을 칭하는 개념이었으나, 1920, 30년대에는 스포츠 관람 시 착용하는 캐주얼웨어의 개념으로, 오늘날에는 스포츠웨어의 개념을 기본으로 한 일상복 뿐 아니라 이브닝웨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sup>3)</sup> 즉, 특별한 행사나 격식을 차려야 되는 옷을 제외한 모든 비공식웨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어 미국에서의 스포츠웨어는 겹에서 도나케런, 칼빈클라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기성복을 칭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구분을 위해 스포츠활동을 위한 의복은 액티브 스포츠웨어라는 용어로 불려진다. 미국적 스포츠웨어개념을 기준으로, 오늘날 패션트렌드 용어로 쓰여지는 스포티브 룩, 스포츠 룩, 스포티즘은,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스포츠웨어에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시킨 패션과 관련한다. 이때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경기를 위한 스포츠활동 뿐만 아니라 낚시나 등산 그 밖의 레저를 위한 의복인 아웃도어웨어, 레저웨어 등을 포함한다.

스포츠와 패션의 접목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정시기에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을 유형에 따라 분류,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정미<sup>4)</sup>는 이를 사이버 스포츠 룩, 바디 컨서스 룩, 힙합 룩으로, 하지수<sup>5)</sup>는 기능주의 스포츠 룩, 스트리트 스포츠 룩, 미래지향 스포츠 룩으로, 임은안, 채금석<sup>6)</sup>은 미래파적 스포츠 스타일, 관능적 스포츠 스타일,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스타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결국 기술혁명에 따른 기능성 디자인, 관능적 스포츠 스타일, 스트리트 스타일로 분류되는 스포츠 룩에 대한 관점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 21세기의 스포티즘은 표현양식의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고찰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단순한 패션트렌드가 아닌 메가트렌드로 정착되었다는 비층 측면, 하이브리드라는 또 다른 메가트렌드에 의해 하이패션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특정 룩들이 패션 트렌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 정보와 컨설턴트들의 예측의 선택적 수용, 스타일리스트들의 이미지 작업과 광고캠페인 작업, 컬렉션 작업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채택과 대중적 브랜드들의 적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착된 트렌드의 생명력은 다른 모습으로 변형 적용되어 다음시즌, 혹은 몇 년 후 다시 반복됨으로써 '주의(-ism)'라는 패션트렌드 용어로 정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0년대 초반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이라는 메가트렌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고찰되었듯이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패션디자이너에 의해 제안되고, 소비자에 의해 채택되어 온 스포티브 룩, 스포츠 룩들이 매시즌, 혹은 일정주기를 가지고 다른 형태로 적용되어 주요 패션트렌드로 정착되어 얻게 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2. 스포티즘 확산의 배경

90년대의 기능주의 스포츠 룩이 2000년대 들어 스포티즘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 시즌을 거듭하면서 다른 주제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네오포렌 소재의 미니멀리즘의 윈드서핑 룩, 스트리트 패션의 강렬한 컬러블로킹 경기복 스타일과 레이싱 기어, 레트로 경향의 테니스 룩, 로맨틱시즘의 새틴점퍼, 오리지널리티의 트랙수트 등이 각 시즌의 핫 아이템으로 제안되었고, 이러한 룩은 시기는 틀리지만 스포티즘이라는 일관된 감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패션트렌드는 디자이너의 우연적 제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패션 트렌드 정보와 소비자 조사, 나아가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 등에 따른 디자이너 자신의 감성을 컬렉션에 반영하여 발의된다. 역으로 소비자에 의해 채택되고, 디자이너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3)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1988), p. 545.

4) 정정미, *Op. cit.*

5) 하지수,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2호 (2000).

6) 임은안, 채금석, "현대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9/10호 (2002).

패션 트렌드의 배경에는 원인 역할을 하는 이전의 다른 패션 트렌드가 있으며, 이러한 원인 격의 패션 트렌드는 당시의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다. 스포티즘을 확산시킨 배경 패션 트렌드로는 하이브리드, 래트로, 캐주얼 라이징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트렌드 발생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라 판단되는 패션 트렌드의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의 반대극부로 나타나는 오리지널리티에의 향수,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에서 찾고자 한다.

### 1) 패션의 다양성

하나의 지배적 경향이 획일화된 룩을 창출하고, 곧 다른 지배적 경향에 자리를 내어주고를 거듭하던 과거와는 달리, 1990년대 중반이후 하나의 트렌드가 다른 표현방법으로 다음시즌 혹은 그 다음 시즌 지속되면서 한 시즌에도 여러 개의 메가 트렌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패션의 다양화가 가속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하나의 트렌드가 이전처럼 다양한 다른 트렌드들과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고,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3의 트렌드를 양산시키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적 현상에 대한 연구는 창조를 요하는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 하이브리드, 혼성, 퓨진, 크로스오버, 다문화 등의 여러 이름으로 이미 20세기 말부터 세기말의 한 경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봉덕·양숙희<sup>7)</sup>는 21세기로의 전환기에 계속되는 이 현상을 시대적 구분이나 절대적 진리와 미를 추구한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을 수용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재,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경계붕괴, 부와 과시적 빈곤의 혼용 등으로 나타나는 혼성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스타일의 결합 양식을 새로운 미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최수아<sup>8)</sup>는 다양한 이질적 요소가 합해져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패션의 이러한 현상을

시대, 문화, 성, IPO, 사회계층, 장르 등에 나타난 퓨전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김혜정<sup>9)</sup>은 패션이 다장르인 회화, 음악, 애니메이션, 무용, 영화 등의 예술분야와 상호관련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이 현상을 상호 텍스트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캐주얼과 스포츠의 융합으로 생성된 스포티즘이 스트리트와 하이패션의 융합으로 컬렉션에서 채택됨으로써 더욱 다양한 룩으로 발전한 현상은 이상의 여러 하이브리드에서 생성된 메가트렌드의 대표적 인 예라 할 수 있다.

### 2) 오리지널리티에의 향수

기술혁명으로 인한 초고속화, 국제정치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자유경쟁으로 인한 약육강식, 세계 확장으로 인한 다문화 등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바람은 지나간 세계에 대한 향수로 나타나고, 이는 의복에 있어서도 과거의 것, 정통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표현된다. 레트로라는 트렌드로 등장한 이러한 경향은 앞서 언급한 패션의 다양성 속에서 나타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에 나타났던 2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혹은 중세, 바로크, 로코코 등 과거시대의 재현들은 로맨틱시즘, 미니멀리즘, 히피 룩, 머스쿨린 룩 등 다양한 주제를 제공, 과거의상의 재현뿐 아니라 디자이너의 감각과 결합된 새로운 창조를 가능케 하였다. 이봉덕·양숙희<sup>10)</sup>는 21세기에도 계속되는 이러한 경향을 신복고라 하여 실용성과 모던함의 강조로 삭막해진 현대인들에게 과거의 환상과 낭만을 주는 디자인으로 설명한다.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은 점점 폭이 넓어지는 스포티즘에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70, 80년대 스포츠 경기를 연상케 하는 로고나 디테일, 나아가 글램이나 뉴 로맨틱스를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셀 슈트, 60년대의 미니멀리즘이 적용된 미니 테니스 드레스 등

7) 이봉덕, 양숙희,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1보): 정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 학회지* 26권 11호 (2002), pp. 1649-1659.

8) 최수아, *Op. cit.*, pp. 66-102.

9) 김혜정,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영역과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애니메이션, 음악, 무대예술,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복식* 54권 2호(2004), pp. 105-119.

10) 이봉덕, 양숙희, *Op. cit.*, pp. 1649-1659.

과거의 요소들을 적용한 스포츠 룩은 부궁무진하다. 스포티즘에 대한 열기가 더해지면서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정통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더해지는 것 또한 스포츠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정장을 입은 근사한 커리어 우먼의 손에 나이키 스포츠 가방, 나이키 조깅화가 들려있고, 옷을 하나하나 벗을수록 타이트한 헬스복이 나타나는 홍콩 나이키 우먼의 광고가 크게 어필되고, 질센너, 요지 야마모토의 컬렉션에 등장한 푸마, 아디다스의 스니커즈는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요소를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복에 적용한 트렌드, 스포티즘이 그 근원인 정통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제품 자체를 채택하고 있는 예이다.

### 3) 젊음지향과 개인주의

주 5 일 근무제, 경제적 여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명연장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몸과 생활을 중시하게 하고, 요가, 피트니스 등 체력단련과 유키능 야채, 선식, 느리게 살기 등 건강유지생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하였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있고, 크고 작은 소속집단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개인의 개성표출에 있다.

Gilles Lipovetsky<sup>11)</sup>는 이러한 관습의 파괴, 대담성과 순간성의 옹호, 성취보다는 이념, 뛰어난 솜씨보다는 정서적인 영향, 사회적 명망보다는 젊다는 것에 특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에 의해 계급과 구별의 상징인 오뜨 쿠튀르의 가치가 떨어지고, 보다 젊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옷의 가치가 올라감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개인관계, 성관계, 스포츠나 직장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자율성은 의복에 있어서도 사회적 차별화보다는 개성에 대한 욕망, 문화적 지향점, 라이프 스타일, 미적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게 한다. 이로써 전 세대, 전 계층에 걸쳐 더 젊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게 하는데 관심을 보이며, 캐주얼한 의복을 입으려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다. 이렇듯 캐주얼한 의복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징후인 것이다.

의복착용에서의 개인주의의 확산은 패션의 스포티즘 표현양식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전의 스포츠 룩에 관한 연구들<sup>12)</sup>에서 나타났던 힙합 룩, 아메리칸 스트리트 스포츠 룩이나 영웅주의 등은 특정 하위집단, 특정 스포츠스타의 룩이 패션트렌드로 확장된 개념이었으나, 최근 스포티즘 패션의 주제는 젊은 세대보다는 전 세대의 젊음지향이며, 농구, 축구 등 실외 집단 스포츠보다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요가, 제즈 댄스, 스포츠 댄스, 복싱, 태보<sup>13)</sup> 등 실내전용 개인운동이라는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무선통신을 일상처럼 즐기는 디지털 이미지 시대의 소위 '영상세대'들은 가상공간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스포츠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로 집결시켰던 공통분모 같은 존재에서 단지 여러 가지 취미활동 중의 하나로 변한 것이다. 그들은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스포츠를 인식할 뿐이다.<sup>14)</sup>

## Ⅲ. 하이브리드에 의한 스포티즘의 유형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이질성의 이미지가 합해져서 전혀 새로운 룩을 만들어내는 의미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부궁무진하다. 최수아<sup>15)</sup>는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나일론, 탈이성주의, 탈창조, 해체, 모호성, 고정관념탈피, 숭고미)에 의해 대립체계 (과거/현재/미래, 세계/지역, 동양/서양, 일/여가, 젊음/노령, 주류문화/하위문화, 남성/여성, 순수예술/응용예술, 예술품/기성품, 현실/가상, 인공/자연)가 붕괴됨에 따라 패션의 시간, 공간, 상황, 계층, 성, 장르 간 퓨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며, 퓨전현상으로 나타난 트렌드를 무려 50여 가지나 저명하고 있다. 이 중 스포티즘에 의해 일어나고, 또한 스포티즘을 심화시킨 대표적인 현상으로 상황

11) Gilles Lipovetsky, *패션의 재국, 이득재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9), pp. 161-213.

12) 임은안, 채금식, *Op. cit.*, 하지수, *Op. cit.*, 정정미, *Op. cit.*

13) 태권도, kickboxing, 에어로빅을 결합한 스포츠.

14) 편집부, "스포츠리즘 인기는 계속된다?", *패션비즈*, 2004년 1월호, pp. 206-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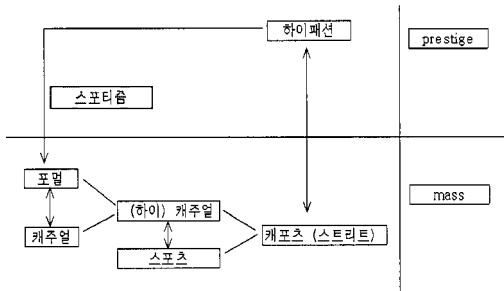
15) 최수아, *Op. cit.*, pp. 48-65.

의 하이브리드와 장르의 하이브리드를 들 수 있다. 상황의 하이브리드 즉, 포멀과 캐주얼, 캐주얼과 스포츠, 스트리트와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차례대로 고찰해 보면, 하이패션에 접목된 스포티즘이 다시 스트리트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를 이루며 패션전반에 미치게 되는 영향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장르, 즉 트렌드의 하이브리드를 통해 표현된 21세기 패션 스포티즘으로는 클럽, 로맨틱리즘, 미니멀리즘, 헤리티지 등 21세기 초 패션에 나타난 여러 트렌드와 스포츠의 결합을 들 수 있다. 스포티즘 확산의 배경과 상황, 장르의 하이브리드에 의한 스포티즘 유형의 관계는 <표 2>로 정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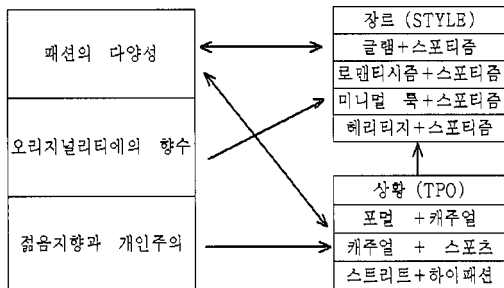
**1. 상황의 하이브리드에 의한 스포티즘**

포멀과 캐주얼, 다시 캐주얼과 스포츠의 융합으로 생성된 스포티즘이 스트리트와 하이패션의 융합으로 컬렉션에서 채택됨으로써 더욱 다양한 룩으로 발

<표 1> 상황의 하이브리드에 의한 메가트렌드 <스포츠리즘>의 확산



<표 2> 스포티즘의 형성



현상은 상황의 하이브리드를 통한 메가트렌드 생성과정을 대표한다.

**1) 포멀과 캐주얼의 하이브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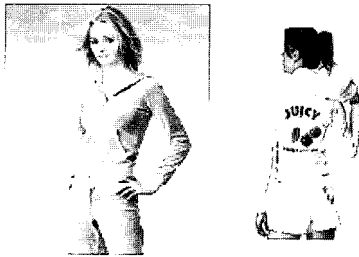
패션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각 영역 간 경계의 모호성은, 셋업이 되는 상, 하의를 제안하던 포멀 브랜드와 믹스 앤 매치를 제안하던 캐주얼 브랜드 사이의 관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에서도 층을 달리하며 구분되어 있는 이 포멀 브랜드와 캐주얼 브랜드는 패션 트렌드가 포멀 혹은 캐주얼 중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 그 경계를 허물고 서로 하이브리드된 디자인을 출시하고 있다. 90년대말 IMF를 전후하여 국내패션이 이지캐주얼로 대변되는 중저가 브랜드와, 병품으로 대변되는 해외수입 브랜드로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을 때 포멀 브랜드와 캐주얼 브랜드들은 준명품을 표방하는 포멀을 지향하였으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주 5일 근무제 도입, 개인주의의 확산, 젊음 지향 등의 영향으로 패션 흐름이 캐주얼 경향을 보이면서, 이 브랜드들은 다시 캐주얼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적 메가트렌드로 제안되는 스포티즘의 영향으로 포멀의 캐주얼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고급소재, 고급패턴에 페미니 감성과 패션성을 강조하며 믹스 앤 매치로 캐주얼 감각을 표현하고 있는 포멀웨어 브랜드들은 디자인측면에서 캐주얼웨어 브랜드들과 많이 가까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브랜드들은 더 적극적으로 리뉴얼 작업을 통해 정장, 니트, 코트 등 포멀브랜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포멀 아이템을 데님과 티셔츠, 바지, 스커트 등 크로스 코디가 가능한 캐주얼 단품류로 대체, 캐주얼 브릿지 라인을 일부 보강하고, 트렌드 아이템의 비중을 예전보다 높이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sup>16)</sup> 이러한 경향으로 회사 일을 마친 후 간단한 운동을 하고 바에 가거나 파티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의 경계가 없는 착장이 가능해졌다.

**2) 캐주얼과 스포츠의 하이브리드**

“정말 새로운 것은 스포츠 의상뿐이다”라고 주장 하던 90년대 후반의 프라다 이후 하이패션에서 스포

16) '여성 캐릭터 내년에 젊은 컨셉 대폭 보강', 어패럴뉴스, (온라인게시판) (2003년 12월 24일 [2004년 1월 2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 firstviewkorea.com



〈그림 1〉 Juicy Couture.

츠가 공백기를 갖는 동안, 거리에서는 올림픽 스타 다음의 육상 트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옷들을 벨로어 소재의 화려한 스웨트 블루종과 로 웨이스드 스웨트 팬츠로 변형시킨 패션이 대성공을 이루었다. 캐주얼의상에 스포츠를 적용시키는 하이브리드는 세 줄 테일의 빈티지 아디다스 트랙수트, 지퍼달린 후드티와 로 웨이스드에 드로우 스트링이 있는 바지가 한 벌인 줘시 꾸뛰르<sup>17)</sup>, J. Lo<sup>18)</sup> 등의 벨로어 트랙수트의 급속한 전파로 더욱 가속화되었다(그림 1). 이러한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실용적 기능성에 대한 매력과 패션 스포츠의 라이프 스타일 웨어에 대한 고민의 축적은 국내에서도 캐주얼 스포츠라는 신규시장을 창출해 내는 토대가 되었고, 캐주얼과 스포츠에서 진화되고 짐(gym)의 요소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스포츠의 우성과 캐주얼의 우성이 결합되어 새롭게 진화된 캐포츠(caports)<sup>19)</sup> 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패션비즈는 경기 위축,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의해 여성복에서부터 패션잡화, 심지어 속옷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캐주얼 라이징'과 '스포티즘'의 영향이 소비자들의 착장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고<sup>20)</sup>, 이에 따라 2003년 대다수 패션브랜드들이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동안, BNX, EXR(그림 2), A6(그림 3)등 국내 캐포츠 브랜드들은 호황기를 맞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up>21)</sup> 캐주얼의 확산이 포멀과 캐



〈그림 2〉 EXR. ('93 S/S). 〈그림 3〉 A6. ('94 S/S).

주얼의 하이브리드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동안, 캐주얼은 다시 스포츠와의 하이브리드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다음에 언급하게 될 하이패션과 스트리트의 하이브리드를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

### 3)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9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하이패션과 스트리트의 결합은 21세기 들어 컬렉션의 한 라인, 혹은 새로운 브랜드의 런칭 등으로까지 확장 진행되고 있다. 2001년 루이 비통 컬렉션에서 마크 제이콥스는 전통의 'LV' 모노그램을 그래피티 스타일의 서체로 대체하여 선보였고, 이런 혁신은 2003년 팝아티스트 부라카미와의 공동작인 '부라카미 백'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다. 칼 라거펠트는 'Lagerfeld Gallery by DIESEL'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쇼에 디젤 진을 등장시켰고, 요시 야마모토는 아디다스와 함께 'Y3'를 선보였으며(그림 4), 존 갈리아노도 디오르 컬렉션에 진을 통합하여 더욱 다양한 룩을 가능케 하였다. 90년대 말 미우치아 프라다가 벨트 색, 고무부츠, 배낭 등으로 조립된 '유틸리티 에슬레틱 시크'를 무대에 올려 스포츠를 하이 스타일로 추대한 이후, 캣워크에서 스포츠 에너지를 잠시 고갈됐었다.<sup>22)</sup> 21세기 초반에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출발은 거리의 트랙수트였다. 트랙수트 또는 셸수트(보다 가벼

17) 주시스 젤라 테일러와 팬 스카이스트 르비키 만든, 스포티즘 트렌드와 맞물려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브랜드로 2003년 봄 리즈 블레이븐사가 인수. 카메론 디아즈, 마돈나, 제니퍼 로페즈, 브리트니 스피어스, 기네스 펠트로 등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인기.

18) 줘시 꾸뛰르와 비슷한 상품 및 소비자 구성을 가진 브랜드로 제니퍼 로페즈가 실립.

19) 패션비즈, 2002년 3월호, pp. 254-25.

20) 뷁집부, "2003 패션마켓 now, 총 24조 5000억 규모의 키워드는 캐주얼라이징+스포티즘," 패션비즈, 2003년 5월호, pp. 184-195.

21) 김숙경, "패션산업 성공 키워드는?" 패션비즈, 2004년 1월호, pp. 156-159.

운 소재로 만들어진)는 원래 스포츠에서도 준비운동이나, 휴식을 취할 때 착용되는 것으로서, 폴 스미스, 캐서린 햄넷, 칼빈 클라인, 도나 캐린, 조지 알마니 등에 의해 패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sweat top과 바지의 착상으로 그들의 기성복 컬렉션에 계속해서 포함되었다. 사실 sweatshirt 직물과 폴라폴리스 같은 thermal 직물이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채택되던 90년대에는 가벼운 소재의 셀수트는 패션의 영역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채택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21세기의 트렉수트는 기존의 기능성 소재의 기능주의적 이미지보다는 글래머러스하고 캐미닌한 이미지의 표현을 위해 실크나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등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진 셀수트이다.<sup>22)</sup> 스트리트에서 영감을 얻은 존 갈리아노, 톰 포드, 랄프 로렌 등이 컬러조합과 디자인, 소재의 변형을 통해 크리스찬 디오르, 구찌, 알포르렌의 캐주얼에 시크한 셀수트를 올렸고(그림 5), 전 계층에 걸친 젊음 지향적, 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스포티즘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존하는 여러 다른 트렌드와 하이브리드되어 새롭게 제안되었다.

**2. 장르의 하이브리드에 의한 스포티즘**

21세기 패션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스타일링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작업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그림 4> Y3. (Left; '02 S/S Right; '04 S/S).

중처럼 어울리지 않을 듯한 아이템들을 자유자재로 혼합하여 주목받고 있는 뉴욕 프로엔자 앵글러의 뉴오디자이너 라자로 헤르난데즈와 색 맥클로우, 팜프파탈과 웨비닌 시크 사이클 넘나드는 클로에의 피미필로, 클래식과 퓨처리즘을 혼합한 비버리 프로섬의 크리스토퍼 베일리 등이 주목받는 이유이다.<sup>24)</sup> 스포티즘은 이러한 혼합에서 자주 사용되는 트렌드이자, 역으로 이러한 혼합을 통해서 더욱 확산되고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트렌드이다. 21세기 초반의 스포티즘은 이 시기에 함께 나타난 여러 다른 트렌드들 즉, 글램, 로맨틱시즘, 미니멀리즘, 헤리티지 등과의 혼합으로 그러한 완성된 창조를 이루고 있다.

**1) 70년대 글램 + 스포티즘**

광택 나고 매끄러운 인조섬유, 화려한 포란트나 라인스톤, 라메, 시퀀스 등 반짝이는 소재, 사이키델릭한 색상, 서로 충돌하는 듯한 색상 매합, 플라스틱 소재의 높은 플랫폼 부츠, 진한 화장, 형광이나 금,은 색을 칠한 긴 너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70년대의 글램<sup>25)</sup>이 21세기 초반 패션의 트렌드로 채택되었다. 비틀즈의 해체와 히피운동의 쇠퇴 후, 급진적인 스타일의 글래머러스한 공연으로 주목을 받은 데이비드



<그림 5> Christian Dior. ('04 S/S).

22) 신광호, "hi, track! High trend," *보그코리아*, 2004년 1월호, pp. 98-100.  
 23) Joy Mckenzie, *the best in sportswear design*, (London: Batsford, 1997), pp. 14-18.  
 24) 이지아, "matchless plays." *보그코리아*, 2004년 3월호, pp. 270-273.  
 25) Zesshu Takamura, *Roots of Street Style*, (Tokyo: Graphic-sha Publishing, 1997), p. 137. 재인용, 임은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39.



보이(david bowie)의 글램 록은 존 갈리아노를 선두로 하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21세기에는 스포츠와 함께 캣워크에 올려졌다. 2003년 S/S 존 갈리아노는 다음의 이미지를 '하드코어 글래머'로 규정지어 신비롭고, 섹시하고 대담한 록을 선보였고, 이는 2003년 모든 기성복 트렌드의 공통분모를 '글래머'로 만들어 색시, 펑크, 에조틱 등의 다양한 분자들과 자유롭게 혼합된 록을 양산하였다. 즉시 꾸뛰르 트랙팬츠와 티셔츠의 조강복 차림을 즐기던 갈리아노는 다음의 2004년 S/S컬렉션에서 이 글래머에 스포츠를 합성, 1천만원을 호가하는 타부시리시에 새틴 트랙수트를 입혀거나(그림 5) 무릎길이의 스트링 팬츠에 포피나 세미 코트셋을 매치(그림 6)하여 스틸레토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차며 섹시한 글래머러스 스포티즘을 전개했다.<sup>26)</sup> 구찌의 톱 포드도 급속성 빛이 나는 라메 소재의 짧은 점퍼에 쉬폰 소재의 트레이닝 팬츠를 입혔고(그림 7), 이보다 앞선 2003년 S/S 장 폴 고티에는 야구점퍼를 기모노 슬리브와 실크를 이용해 야망가르드하게 재해석하여 글래머러스 스포츠 록을 보여주었다.(그림 8)

## 2) 로맨티시즘 + 스포티즘

완고한 고전주의에 대항하여 인간감정의 자유분방한 표현을 주장하며 나타난 로맨티시즘은 역사적 회고를 그 특징으로 하는데, 19세기 말 로맨티시즘 패션의 리본, 러플, 레이스, 장식적인 소재, 감성적이고 여성적인 곡선과 디테일은 화려한 로코코 스타일



〈그림 6〉 Left; 존 갈리아노와 모델 지젤.  
(Right; Christian Dior, '04 S/S).



〈그림 7〉 Gucci. ('04 S/S). 〈그림 8〉 Jean Paul Gaultier. ('03 S/S).

이 복고된 것으로서 21세기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역시 그러한 복고적 분위기가 특징이다.<sup>27)</sup>

앞중심에 주름이 많이 잡힌, 여성스러운 새틴 소재의 짧은 쉘 점퍼로 로맨티시즘과 스포티즘의 결합을 예고한 구찌의 톱 포드, 레이스 라제리 웨어 위에 짧은 패딩 블루종을 매치시킨 샤넬의 칼 라거펠트, 비즈와 레이스의 여성스러운 드레스에 메탈릭 파카 점퍼를 입히고 둔탁한 모피 롱 부츠를 스타일링한 안나 수이(그림 9), 라제리에 가까운 새틴과 레이스 패치워크의 스커트에ミリ터리풍 블랙 파카점퍼를 입힌 DKNY의 도나 카란 등은 여성적 디테일, 시스루 소재의 로맨틱 록과 대비시키며 스포티즘을 표현했다.<sup>28)</sup>



〈그림 9〉 Anna Sui. ('03 <그림 10〉 중고스타일의 트랙수트.

26) 신광호, *Op. cit.*, pp. 98-100.

27) 이효진, "21세기 로맨티시즘, 걸리쉬 패션," *복식* 53권 7호(2003), pp. 11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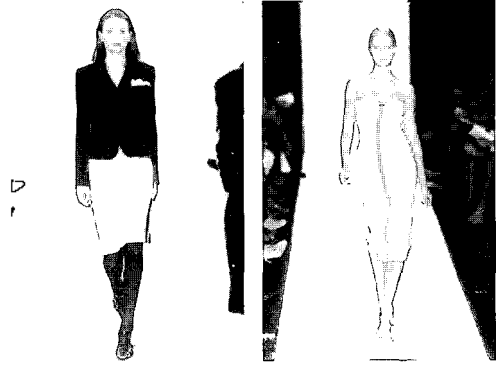
28) 김의향, "new fashionista, parka," *보그코리아*, 2003년 11월호, pp. 176-178.

한편, 오래 전에 입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 중고 스타일의 트레이닝 수트(그림 10) 역시 21세기 스포티즘의 대중화 요소인데, 노미경, 양취경<sup>29)</sup>은 21세기 초의 스트리트 패션을 연구하면서 여러 유형 중 로맨틱 스타일의 특성으로 중고 스타일의 트레이닝 수트를 들어 이러한 스포티즘과 로맨틱의 결합을 언급하였다.

3) 60년대 미니멀 룩 + 스포티즘

2003년부터 단순한 형태, 단일색상, 장식과 디테일의 단순화를 특징으로 하는 60년대의 미니멀 룩이 주목받았는데, 아주 짧은 스포츠 팬츠의 미니멀한 짐(gym) 스타일의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그림 11), 미니멀 테니스 룩의 안나수이(그림 12), 단순한 형태와 색상의 짐 스타일의 랄프 로렌(그림 13)과 나르시스 로드리게즈(그림 14) 등은 이러한 미니멀 룩을 스포츠와 접목시켜 세련된 스포티즘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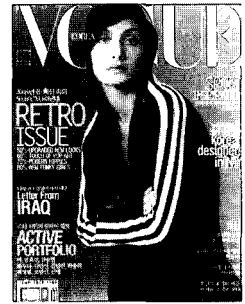
한편, 60년대 캘리포니아의 알로하 셔츠와 화려한 꽃무늬의 짧은 파자마 스타일, 서퍼 룩,<sup>30)</sup>이 미니멀한 보디 컨셔스 라인, 현란한 컬러와 그래픽의 팝적인 요소를 지닌 수트로 변형되어 50년대의 로맨틱한 스타일과 함께 건강하고 여성스러운 스포티즘으로 나타났는데, 2003 S/S 컬렉션에서 대형 서핑보드를 든 모델들의 행진으로 피날레를 장식한 샤넬, 몇가지 단순한 컬러로 구성된 서퍼 보디수트의 발렌시아가와 루엘라 바틀리의 컬렉션에서는 모델들이 수상



<그림 13> Ralph Lauren. <그림 14> Narciso Rodriguez. ('04 S/S).



<그림 15> Prada. ('03 S/S).



<그림 16> 아디다스. (보그 '03. 3. 표지).



<그림 11> Marc. ('04 S/S).



<그림 12> Anna Sui. ('03 S/S).

스포츠를 즐기다 나온 듯 얼굴과 머리가 모두 젖어 있었으며, 테닝 피부를 자랑하며 밝고 건강한 글래머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같은 시즌, 루이 비통의 마크 제이콥스 역시 서프 수트를 디자인, 50년대 스타일의 팬츠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제안하였으며, 프라다는 바이커의 고글, 피트되는 서퍼 룩, 새틴 램 스커트로 60년대 꾸레주의 스페이스 룩을 선보였고(그림 15), 후세인 살라얀, 헬무트 랭, 국내디자이너 루비나도 서퍼 룩의 스포티즘을 캣워크에 올렸다.

4) 헤리티지 + 스포티즘

기술혁명, 국제정치의 위기상황, 극자유경쟁, 세계확장 등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바람은 지나간 세계에 대한

29) 노미경, 양취경, "서울과 밀라노의 스트리트 패션 비교 연구," 복식 53권 5호 (2003), pp. 55-59.

30) Zesshu Takamura, *Op. cit.*, p. 97, 재인용, 임은혜, *Op. cit.*, p. 30.

향수로 나타나고, 의복에 있어서도 과거의 것, 정통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표현된다. 과거의 것을 현대의 것과 하이브리드시켜 새로운 룩을 제창시키려는 시도는 더 나아가 정통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헤리티지에의 향수로 이어진다. 스포티즘의 확산에 있어 특히 이 헤리티지는 중요한 키워드인데,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캔버스 등 정통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헤리티지 제품들과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요소들을 응용한 하이패션의 스포티즘 패션은 서로 믹스 앤 매치되면서 서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들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헤리티지의 부상을 감지하면서 이를 반영한 제품을 대거 출시하였는데, 이들은 과거의 스포츠 경기를 연상시키게 하는, 스포츠의 오리지널리티와 정통성을 표현한 헤리티지 제품을 별도의 라인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나뭇잎 모양의 예전의 로고를 사용하여 기존라인과 구분한 아디다스의 헤리티지라인, 70년대의 스포츠를 부각한 휠라의 테니스라인, 푸마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하는 컨셉, 이태리 정통스포츠이미지를 부각시킨 엘레체의 헤리티지 라인 등이 2004년 S/S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제품 기획 키워드이다.<sup>31)</sup> 1920년대 독일 육상선수들의 운동화 제조에서 출발한 아디다스의 세겔 줄을 가진 신발은 히피족들이 반체제적인 행동의 패션적 표현으로서 진과 함께 착용,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아디다스 스포츠웨어와 함께 최신 유행의 대표주자라는 지위를 점하고 있다. 70년대 스케이팅 보드용 신발인 '수퍼스타'를 80년대에 리바이벌한 아디다스 '오리지널'은 뉴욕의 랩가수들은 물론, 이브닝 드레스 차림의 모델 케이트 모스, 팝의 여왕 마돈나 등에 의해 사랑받는 아이템이었으며,<sup>32)</sup> 힙합그룹 Run DMC는 1986년 'My Adidas'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sup>33)</sup> 스트리트에서 시작되어 하이패션의 메가 트렌드로 정착한 21세기 스포티즘의 발로에는 이 아디다스 브랜드의 정통성에 대한 트렌드세터들의 충성도가 있었다. 1920년대 영국의 농구 선수들을 위해 개발된, 캔버스 소재의 '캔버스 올스타'

운동화는 50년대 중반 청소년들에 의해 가벼운 평상복으로 옮겨져, '코니'라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전설적인 신발인데,<sup>34)</sup> 제임스 딘이 블루진이나 가죽 재킷과 함께 즐겨 신었고, 마돈나의 뮤직 비디오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신발 역시 21세기 스포티즘의 열풍과 함께 하이패션의 영역에 진출한 대표적 액티브 스포츠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영캐주얼 브랜드인 '데얼스'는 매장 내에 정통 스포츠 슈즈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을 병행수입해 신발 뿐 아니라, 스포티즘을 표현한 의류들도 높은 매출을 올렸다.

#### IV. 결 론

90년대 후반의 기능주의 스포츠 룩이 2000년대 들어서는 스포티즘이라는 개념으로 등장, 한 시즌 유행하다 사라지는 일회성 트렌드가 아닌 시즌을 거듭하면서 다른 주제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21세기의 메가 트렌드로 정착했다.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스포츠 웨어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양식으로 발전하게 된 21세기 초반의 스포티즘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찰하고, 스포츠가 아닌 다른 상황, 스포티즘이 아닌 다른 트렌드와의 하이브리드를 통해 새롭게 창조되고, 확산된 스포티즘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스포티즘 확산의 배경으로는 패션의 다양성, 오리지널리티에의 향수, 젊음지향과 개인주의가 고찰되었다.

현대패션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인 다원성, 해체, 모호성 등에 의해 한가지의 트렌드가 다양한 여러 트렌드들과 함께 개별적으로도 나타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트렌드들과의 하이브리드를 통해 제3의 트렌드를 낳으면서 패션트렌드의 다양화가 촉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티즘은 상황의 하이브리드에 의해 확산되고 다시 다양화된 여러 트렌드와의 하이브리드에 의해 발전적 전개를 이르게 되었다.

한편, 기술혁명, 극자유경쟁, 국제적 위기상황, 다문화 등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환경으로부터 벗어

31) "스포츠 시장에 헤리티지 열풍," 어패럴 뉴스, [온라인게시판](2004년 1월 1일 [2004년 1월 2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firstviewkorea.com>.

32) Beate Schmid and Ingrid Loschek, *패션의 클래식*, 황현숙 역, (서울: 예경, 2004) pp. 108-109.

33) Francois Baudot, *A century of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1999), p. 29.

34) Beate Schmid and Ingrid Loschek, *Op. cit.*, p. 114-115.

나고자 하는 바람 속에서 과거의 것, 정통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오리지널리티에의 관심은 21세기 스포티즘의 다양한 주제들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 경제적 여유, 과학기술의 발달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젊음유지를 위한 체력단련, 건강유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였고, 이는 개인의 욕망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를 확산시켰는데, 보다 캐주얼한 의복에 대한 관심은 스포티즘의 착용 대상이나 표현양식에 영향을 끼쳐 전 세대에 걸친 젊음지향, 피트니스 센터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실내전용 개인운동이 21세기 스포티즘의 주제로 정착되었다.

하이브리드에 의한 스포티즘의 유형으로는 상황의 하이브리드에 의한 유형과 장르의 하이브리드에 의한 유형이 각각 고찰되었다.

우선 상황의 하이브리드를 살펴보면 첫째, 패션 전반에 확산된 스포티즘은 포멀과 캐주얼의 결합으로 포멀웨어의 캐주얼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는데, 이는 포멀웨어의 고급소재, 고급패턴에 스포티즘의 패션성을 강조한 믹스 앤 매치 캐주얼 감각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실용적 기능성에 대한 매력과 캐주얼웨어의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민은 캐포츠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이는 패션의 모든 영역에 걸쳐 확산되며, 소비자들의 차장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셋째, 스트리트에서 시작된 트랙수트의 열풍이 하이패션에 수용되었고, 다른 패션 트렌드들과의 하이브리드를 통해 보다 다양한 변형을 이루게 되었다.

장르의 하이브리드로는 첫째, 광택 나고 매끄러운 인조섬유, 화려한 프린트나 라인스톤, 라메, 시퀸스 등 반짝이는 소재, 사이키델릭한 소재, 서로 충돌하는 색상배합 등을 특징으로 하는 70년대 글램을 트랙수트에 표현한 글래머러스 스포티즘, 둘째, 리본, 러플, 레이스, 장식적인 소재, 감성적이고 여성적인 곡선과 디테일의 로맨틱리즘과 스포츠 아이템을 결합한 로맨틱 스포티즘, 셋째, 단순한 형태, 단일색상, 장식과 디테일의 난순화를 특징으로 하는 60년대의 미니멀리즘과 모노톤의 트랙수트, 미니 테니스 룩,

서퍼 룩 등의 미니멀 스포티즘, 넷째, 정통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오리지널리티에의 향수가 정통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채택으로 나타난 헤리티지 스포티즘 등의 유형으로 고찰되었다.

패션창조에 있어 다양한 주제를 제공해주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패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유형적 틀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공된 유형적 틀을 기반으로 21세기 초 하이브리드에 의한 스포티즘을 분석하였는데, 매 시즌 다른 주제로 제안되는 패션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 분석된 유형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퍼스트뷰코리아사에서 발표한<sup>35)</sup> 2005 S/S의 트렌드에서는 도시의 사인(sign)과 아프리칸 모티프를 담아내는 프리미티브(primitive) / 어번(urban) 스포츠, 목의 Afro-Metro라는 주제로 스포티즘을 예견하고 있다. 즉, 다음 시즌에는 공간(국가간 문화)의 하이브리드, 장르(인공과 자연)의 하이브리드로 스포티즘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라는 패션창조의 기준틀을 중심으로 한 스포티즘의 분석은 일정 시기마다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 확장되는 21세기의 다른 메가트렌드에 대한 동일한 분석도 패션트렌드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에 일조할 수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민정 (2001).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 (2004년 1월). "패션산업 성공 키워드는?" *패션비즈*.
- 김의향 (2003년 11월). "new fashionista, parka." *브로그코리아*.
- 김혜정 (2004).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영역과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 애니메이션, 음악, 무대예술, 테크놀로지불 중심으로 -." *복식* 54권 2호.
- 노미경, 양취경 (2003). "서울과 밀라노의 스트리트

35) '05 S/S Creative Trend, 2004년 5월 14일, 선유센터.

- 패션 비교 연구.” 복식 53권 5호.
- 문명선 (2002년 3월). “캐포츠 시장 파이오니어(EXR) 프로그램 브랜드.” *패션비즈*.
- 신광호 (2004년 1월). “hi, track! High trend.” *보그코리아*.
- 이봉덕, 양숙희 (2002).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1보): 정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1호.
- 이유미 (2001).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아 (2004년 3월). “matchless plays.” *보그코리아*.
- 이효진 (2003). “21세기 로맨티시즘, 걸리쉬 패션.” *복식* 53권 7호.
- 임은안, 채금석 (2002). “현대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9/10호.
- 임은혁 (2002).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미 (1996).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아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 임영자 (2001).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권 2호.
- 하지수 (2000).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2호.
- Calasibetta, Charlotte Mankey (198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 Lipovetsky, Gilles (1999). *패션의 재국*. 이득재 역, 문예출판사.
- Takamura Zesshu (1997). *Roots of Street Style*. Tokyo: Graphic-sha Publishing.
- “여성 캐릭터 내년에 젊은 컨셉 대폭 보강” (2003년 12월 24일 [2004년 1월 20일 검색]). *어패럴 뉴스*; World Wide Web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
- “스포츠 시장에 헤리티지 열풍” (2004년 1월 1일 [2004년 1월 20일 검색]). *어패럴 뉴스*; World Wide Web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
- 편집부 (2003년 5월). “2003 패션마켓 now, 총 24조 5000억 규모의 키워드는 캐주얼라이징+스포티즘.” *패션비즈*.
- 편집부 (2004년 1월). “스포티즘 인기는 계속된다?” *패션비즈*.